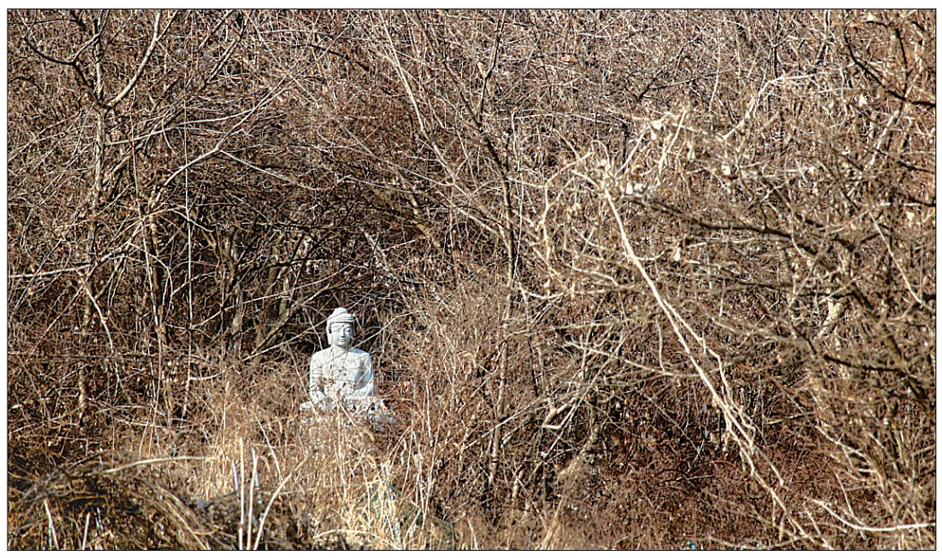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다 간 '인간 붓다'



인간 붓다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펴냄
2만3천원

신화 · 설화 걷어낸 '인간 붓다' 조명
붓다 인간적 면모, 또 다른 가르침
"붓다 가르침 여전히 강력한 진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사진 DB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붓다는 신격화된 붓다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을 살다 간 인간 붓다이다. 필자는 붓다의 참모습과 바른 가르침을 모아 불경을 편찬하는 작업을 하면서 인간 붓다의 모습을 초기 율장인 〈마하왁가〉와 〈쭐라왁가〉에서 찾아 정리했다."

붓다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다. 책 〈인간 붓다〉는 붓다의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대중에게는 또 다른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붓다의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초기 율장에서 가려 뽑은 붓다의 일대기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을 소개한다. 붓다가 신비로운 만능의 존재가 아닌, 중생처럼 괴로움과 고군분투하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신화적인 부분과 설화를 걷어낸 '인간 붓다' 이야기이다.

붓다는 실존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대중은 붓다의 인간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면모만으로 그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붓다는 전생에 오랜 세월 보살행을 닦고 연등불의 수기를 받아 도솔천에 머물다가 인연이 성숙하여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에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들었다. 이것이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붓다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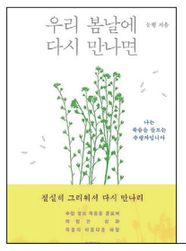
불교는 싯다르타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초기 율장인 〈마하왁가〉는 붓다가 처음 깨달음을 이룬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붓다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초야에 숙명통을 성취하고, 중야에 천안통을 성취하고, 후야에 누진통을 성취했다는 설도 있고, 4성제를 깨달았다는 설도 있고, 12연기를 깨달았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마하왁가〉에서는 붓다가 12연기를 유전문과 환멸문을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한 것이 붓다가 깨달은 내용이라고 전하고 있다.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의 역관과 순관은 4성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마하왁가〉는 12연기와 4성제가 붓다가 깨달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거만한 바라문들의 도전, 자신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제자와 신도,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고타마 싯다르타 자신과의 싸움. 붓다의 삶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은 붓다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인도의 수많은 천신도 이미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종교와 신화라는 포장을 걷어내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붓다를 직시하면,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는 '인간 붓다'의 모습이 드러난다.

책 〈인간 붓다〉에서는 그가 겪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루어낸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가 얻은 승리는 고고한 이상향이 아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실적이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에 감화됐고, 그 감화야말로 오늘날까지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이것이 붓다가 이룬 위대함이다. 그래서 '인간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도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책 〈인간 붓다〉는 붓다의 생애와 그의 깨달음을 통해 오늘의 대중에게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오늘의 대중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바르게 정진하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단순하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이 책을 통해 대중은 고대의 지혜와 오늘의 문제를 연결 짓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강력한 진리인 것이다. 책 〈인간 붓다〉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죽음, 더 아름다운 삶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
능행 스님 지음
김영사 펴냄
1만8천8백원

"사실 아내는 3년간의 투병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몸을 놓고 훌훌 떠나고 싶었지만, 병든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보살펴온 정토마을 자재병원 능행 스님이 그동안 환자들과 함께 겪었던 이야기들을 묶어 새롭게 펴냈다. 책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은 저자의 기출간 베스트셀러 도서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와 〈이 순간〉 〈숨〉에 수록된 이야기 중에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글을 가려내서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 쓴 글을 추가해 엮었다. 위 세 권의 도서는 죽음과 소생이라는 불교의 희망적인 내세관을 많은 대중에게 읽기 쉽게 소개하여 출간 당시 수십 만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다.

"마침내 남편은 아내에게 떠나도 좋다고 허락을 했다. 부부는 3일 동안, 살아온 옛이야기부터 그동안 투병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잠자듯 떠났다."

책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은 능행 스님이 수천 명의 죽음을 돌보며 지켜본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여정과 그 여정이 가져다 준 깨달음들이 담겨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죽음. '죽음'이라는 명제는 같지만 그 길의 여정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수많은 길을 지켜보는 일이 능행 스님에게는 다름 아닌 수행이다.

"죽음은 그 죽음을 딛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떠나는 여행과 같다. 남편은 아내가 꾼 꿈처럼 죽음이 육신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곳,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곳,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나는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성찰을 했다고, 사십구재 기간 동안 만날 때마다 말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그리고 다음 생에 대한 배움을 시작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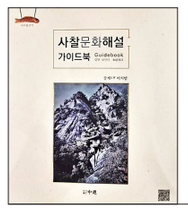
이별과 상실의 아픔, 관계의 굽이를 지나 스님의 이야기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 이생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별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인 저자는 정토에 태어나는 길로 대중을 안내한다.

"정토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염불수행을 권한다. …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발원이다.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음 생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여정에 임해야 한다. 죽음에 가닿는 순간이야말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기회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능행 스님은 '죽음도 삶이 여정'이라는 신념으로 30년간 수천 명의 죽음을 배웅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 제대로 된 호스피스 시설이 없음을 가슴 아파하던 스님은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 정토마을을 세웠고, 이후 불교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자재병원을 건립했다. 2021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재완 기자

사찰·불교문화 해설 관한 안내서



사찰문화해설 가이드북
이지범 지음
도서출판 중도
2만8천원

〈사찰문화해설 가이드북〉은 사찰과 불교문화 해설에 관한 안내서다. 우리나라 사찰과 문화, 불교의 기본사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와 더불어 사찰문화해설에 필요한 해설의 기본 개념과 관련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사찰문화해설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해설의 요령(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서론(Ⅰ·Ⅱ)에서는 사찰문화해설의 기본 장소인 사찰에 관한 내용과 해설의 기원을 설명하고, 해설사의 직무론과 연관된 기본과제를 비롯해 개인적 자질과 해설요령에 관한 것들을 탐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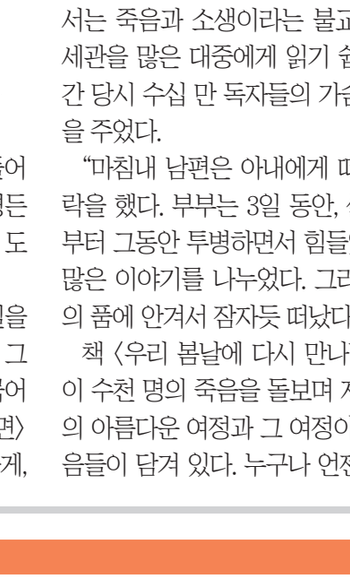
본론(Ⅲ·Ⅳ·Ⅴ·Ⅵ·Ⅶ)에서는 어떤 사찰을 안내 또는 해설한다고 할 때, 출발지점에서 해산 지점까지 참가자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느끼는 심미안(審美眼)을 중심으로 기본사항을 서술하여 문화유산 해설과 지역 안내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한다. 특히, 표본 사례에서는 사찰의 주요 시설물과 건물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쓰임새와 전각의 주인공들을 다루었다. 일반적 이해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건축의 주요한 특징과 조형미 등으로 소개한다. 붓다의 사상체계에서는 부처님 연대기를 비롯해 대표하는 제자들, 기본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궁금한 불교 상식에 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결론(Ⅷ)에서는 사찰문화해설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자료,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그 방향에 경험적 요소를 설정했다.

저자 이지범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 동네에서 태어났다. 1990년도 경남 합천 해인사로 출가·환속했다. 2011년 고려 초초대장경 천년의 해 기념행사를 총괄하는 등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등의 일을 맡았다. 현재, 북한불교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9년부터 대한불교청년회가 개설한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과 심화과정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2024년 3월 경기도 수원에서 결성된 경기문화유산교실 교장을 맡고 있다.

박재완 기자

"무엇이 삶을 구원하는가?"
★★★★★
오프라 윈프리가 선택한 화제의 그 책!
세상을 놀라게 만든 무고한 흑인 사형수의 뭉클한 고백
일상이 폭력인 곳에서 붓다를 만나 내면의 자유를 찾다!



붓다의 감성을 전하며
붓다를 닮아가는 어느 무고한
흑인 사형수의 삶은
이제 고독한 독백이 아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든 한 인간의
인격 성장기이자 가슴 뭉클한
고백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반이다.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의
한 무고한
사형수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 옮김
456쪽 |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한때는 '나'였던 것들과의 작별,
이것이 최고의 '나'로 거듭나는 비결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명상·영성 분야 1위) ★★★
★★★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의 추천 ★★★



내면 치유
숭 푸에블로 지음 | 권혜림 옮김 | 262쪽 | 20,000원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할 때
달라지는 것들

추천의 말 —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킨다

"이 책은 우리 역시 내면과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
- 샤론 샐즈버그,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의 저자

"마음을 돌볼 필요가 있는 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격려이다."
- 잭 콘필드, 『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의 저자